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코로나 시대의 밥 먹기

코로나로 우리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겪고 있다. '비대면'의 일상화는 장점도 있지만, 접촉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인간의 오랜 관습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는 삶의 양태를 많이 바꾸었다. 음식과 식당 쪽에서는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타격이 컸다. 집합 제한은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회식이 없어지고, 각종 모임이 사라졌다. 단체손님을 받아 유지하던 식당은 전업하거나 폐업을 많이 했다.

식당 사이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것은 상징적이다. 배달비가 생긴 것도 배달 시대 1백년의 기념비적인(?) 변화랄까. 이미 일제강점기에 대도시에는 배달이 유행했다. 설렁탕과 국수, 냉면이 주 품목이었다. 배달비는 거의 없었다. 사람 비용이 엄청나게 싸던 시절이었으니까. 서울을 예를 들면 '먹여 주고 재워 주는' 것으로 월급을 대신하던 때도 있지 않았던가. 70년대 중반에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당국의 주1회 강제휴무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휴일도 없이 일하던 시대였다.

배달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일도 많다. 리뷰의 일상화다. 작은 동네가 배달권이던 때는 입소문으로 식당의 특성과 맛을 다들 알고 있었다. 이제는 배달 주문한 식당 주인이 누구인지,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그저 배달시킬 뿐이다. 입소문 대신 리뷰가 그 일을 담당한다. 리뷰 조작과 이른바 '진상 손님'의 별첨 테러 같은 일이 기사가 된다.

입소문으로 알던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모르는 이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관습이다. 그런 특성이 리뷰나 배달원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는 이가 아니니, 냉정해지는 셈이다. 늦게까지 밥 먹고 술 마시던 습관(?)도 많이 달라졌다. 대중교통도 일찍 끊어지니, 집으로 집으로 향했다.

유튜브 등을 보고 집에서 요리하는 취미도 늘어간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진상하고 놀아 주고 가르치는 일이 일상의 큰 부담이 되었다. 유튜브 중에 조리법을 가르치는 채널이 폭증했다. 특히 집밥을 알려주는 '할머니 부대'의 등장은 흥미롭다. 밥 안치는 법부터 콩나물무침, 된장국, 제육볶음, 나물 요리 같은 전통적인 집밥 채널이 대박을 쳤다. 세상의 흐름이라기보다 코로나가 전해준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세대의 손맛이 유튜브로 전해진다. 이것은 정말 대환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어머니 손맛은 그렇게 한국에서 이어져 갈 듯하다.

역시 코로나는 위생 면에서 큰 비용 부담을 안겨 주었다. 대신 혁명적이라고 할 인식 개선도 선사했다. 손씻기가 일상화되고, 식당의 위생을 따지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던 반찬공유가 이전 거의 사라져 간다. 행정 당국에서 그것도 덜어 먹거나 국가 제공 등을 호소했어도 잘 먹지 않던 것이 코로나 사태 한 방으로 갑자기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의 힘이 무섭다고나 할까. 반찬 재활용 역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손님들이 당당히 요구하면서 근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는 백신 보급 등으로 위세가 꺾일 거라고 보는 예상이 대체다. 하나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이 매년 다른 얼굴로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던 것처럼 말이다. 경천동지할 변화를 코로나가 야기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집합 인원 제한이 완화되거나 삭제되고, 영업시간 등도 늘어나고 있다. 금지 업소들도 문을 다시 열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외국에서 들려오는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불안하다. 우리는 잘 이겨 냈다. 인내심 있게 1년 반 이상을 버텼다. 그 기간 동안 한계에 다다랐다고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또 끌고 갔다. 코로나가 다시 강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겨 낼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포용하고 손을 잡을 줄 아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밥을 나누고, 막걸리 한 잔을 편하게 마실 날이 오리라고. 더한 고통도 견뎌 냈던 민족이니까.

<음식 칼럼니스트>

社說

1년 남은 민선 7기 현안 해결 집중을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어느새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남은 1년 동안 펼칠 행정 구상을 잇따라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연산 10만 대 규모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력산업단지 내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외 투자 유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도시철도 2호선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 숙원 사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 낸 것도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정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한 것을 으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도의 예산이 사상 처음 10조 원 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전선 및 남해안 고속전철과 전라선 고속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도 큰 성과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모두 해묵은 현안들이 적지 않아 남은 기간 이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양 지역 간 갈등을 불러 온 광주 균형 이전 문제는 국무총리실 내 범정부형 의제가 꾸러질 만큼 양 시도가 상생의 자세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또 광주시는 지난달 발생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안전 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남도의 경우 민선 7기에도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소멸을 막고 청년 인구를 유입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마철 피해 없도록 미연에 대비해야

광주·전남 지역의 장마가 오는 4일 전후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다. 이번 장마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될 전망이다. 남부 지역의 역대 가장 늦은 장마는 1982년으로 그해 7월 7일에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는 소나기나 국지적 호우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실제 이를 예고하듯 지난 29일 곡성군 옥곡면에는 시간당 57.5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당시 비는 곡성·구례·화순·순천 등 동부 내륙에 내렸는데 강수 구역 안에서도 지역 간 강도와 양의 차이가 컸다. 하루 전인 28일에는 광주에 집중호우가 내려 북구 두암동 동문대로 일부 구간과 말바우시장 일원 도로가 일시 침수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도 광주·전남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장마 기간 동안 평년 평균 강수량 338.7mm보다 많은 507.2mm의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를 입은 구례와 곡성 지역은 아직도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어느덧 일상화하고 있다.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피해를 받지 알 수 없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 이뤄진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막거나 줄일 수 있다. 과거에 되풀이됐던 수해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및 소방안전 당국은 장마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줌 붐(Zoom boom)과 교정치료

능성이 증가하며, 잇몸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전체 아동의 50~70%가 성장기 동안 교정치료를 받으며, 중산층의 경우 교정치료는 청소년기에 거쳐야만 하는 통과례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청소년기 교정치료가 이렇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가지런하지 않은 치아를 가진 성인의 경우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짐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영국의 경우 국가의 건강보험으로 교정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치아 배열의 이상 정도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문제까지 접수하면 교정치료 필요 지수가 중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건강보험으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이 건강보험으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작년 7월에 보고된 우리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16.8%가 부정교합이 있었으며, 부정교합은 시력 이상과 충치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실제 교정치료를 받는 비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교정치료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정치료는 미용 치료가 아니며, 교정치료를 통해 구강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모든 부정교합을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여건을 고려해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정치료가 필요한 정도와 효과 및 부작용,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주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및 한국 교정학회에서 권장하는 생애 첫 교정 검사 시기는 7세이다. 특히 젓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에는 치아의 배열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므로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시기에는 간단한 치료로 부정교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후의 교정치료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기의 교정치료는 성인기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치료 기간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청소년기에 교정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줌 붐으로 성인 교정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 일찍 교정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해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최적기인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학생 기간에 교정치료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교정치료를 위해 치과를 다니는 시간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지만, 이보다는 본인의 학습 의지가 학업에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정치료 과정은 환자가 치료 진료에 익숙해지고, 환자의 구강 위생관리 능력을 키우는 하나의 체험교육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정치료가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교정치료의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교정치료가 보편화되어가는 시대이다. 자녀의 교정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정치료가 언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성훈 조선대 치과대학 교정과 교수

영국 교정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6세 이상 성인 여성의 교정 치료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Covid)-19 유행으로 온라인 플랫폼인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크게 늘어났고, 이 때 자신의 얼굴이 보다 클로즈업되어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교정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줌 붐(Zoom boom)'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셀피의 유행도 교정치료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켜 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환자들이 교정치료를 찾는 주된 동기는 심미적인 개선인 경우가 많다. 심미적인 개선이 교정치료의 중요한 효과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건강한 치아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교정치료를 통해서 저작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구강 위생관리를 용이하게 해 건강한 치열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치아가 비틀어진 경우 통상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제대로 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윗니가 돌출된 경우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손상되는가

기고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입지 조건

거하며, 이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공 문화시설은 서울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그러한 판단 기준에 변화가 없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면 우수한 공공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흐름이 지금도 유효하다.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으니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건축의 이용률 관점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다.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기념비적인 공공 문화시설은, 서울보다 나은 조건이 없고, 서울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급속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점 지역에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로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였다. 많은 이전 효과가 있으며, 점차 지방 인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주하였다가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직장 때문에 생활 근거지를 모두 옮기고 지방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희망 사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직장과 가족이 사는 집이 전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박물관은 대도시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지방 도시에 건립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예술품을 향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람객은 도시 규모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이제 중앙집중형 하나가 아니라, 분산형으로 문화예술품

이 고객들을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건희 미술관은 분산형 미술관으로 건립하도록 하자. 이건희 미술관을 분관형으로 하여 수도권에 한정된 문화 서비스를 초광역권으로 재편되는 부산·울산·경남·경북,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대전·충남·충북 등 중부권의 문화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산형 미술관으로 운영되는 이건희 미술관은 삼삼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암미술관과 함께 서울에 분관을 두고, 중부권·호남권·영남권이라는 초광역권의 거점 시설로서 분산 미술관으로 운영하면 된다. 소장품도 수장고에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관과 분관을 오가며 문화예술품을 순환 전시할 수 있다. 1만여 점이 넘는 귀한 작품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작품을 하나의 건축물에 담아서 전시하고 서비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차 산업인 제조업은 생태계가 복잡한 탓에 지방 성화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우수한 콘텐츠가 성패를 결정한다. 이건희 미술관을 초광역권, 분관형 미술관으로 구성한다면 입지조건은 국내외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KTX역세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입지하는 도시의 공간 구조와 환경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재생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 문화산업의 생태계는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초대형 미술관, 혹은 문화시설의 분산형 시스템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실천 전략이 될 것이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전남도 총괄건축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문화예술 소장품이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 회장의 고가의 소장품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문화유산을 사회에 돌려주는 작업은 미술관 건립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건희 미술관'(가칭) 유치전이 온 나라를 달구고 있다. 문화시설이 지역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문화시설의 입지조건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가 기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공공 문화시설은 대도시, 도심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자산들이 밀집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었으니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된다.

우리나라의 좋은 시설은 모두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쉬운 생각이다. 활용 가능한 인구가 많으니 그 시설의 이용률이 높다. 건축물의 이용률에 큰

無等鼓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다 아름다운 구름의 모습에 이끌릴 때가 있다. 예전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만 요즘엔 즉각 스마트폰을 꺼내 앵글에 담아 본다. '구름감상협회'(cloudappreciationsociety.org)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다. 하늘을 보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점점이 박힌 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보는 일도 많아졌다.

구름감상협회는 '구름 추적자' 개인 프레타피니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추종자들이 맞서 2005

년 설립했다. 협회에는 현재 120개국 5만 3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수시로 세계 곳곳의 구름 사진을 올린다. 올 초에는 전 세계 회원들이 보낸 365장의 구름 사진과 절막한 글을 엮은 '날마다 구름 한 점'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을 본 사람이라면 그 절묘한 화면 구성과 파스텔 색조의 색감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만들어 낸 독특하고 아름다운 화면들은 보는 사람을 행복한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미국의 윌리

코발이란 사람도 '웨스 앤더슨'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 아내와 여행 버킷 리스트를 짜던 그는 영화에 나오는 장소와 비슷해 보이는 곳의 사진을 보고,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017년 '엑시덴탈리웨스 앤더슨'(https://accidentallywesanderson.com)을 개설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현재 140만 명이 넘는, '모험과 탐험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을 올리고 감상한다.

지난 5월 출간된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란 책도 있다. 표지로 쓰인 1882년 스위스 벨레데레 호텔을 비롯해 평양의 지하철 등 200여 장의 사진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는 회사 책상에 이 책을 놓아두고 아껴 가며 보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행복에 빠지곤 한다.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블루, 오렌지, 호텔, 도서관, 등대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당신도 '웨스 앤더슨의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 것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